

SBS 목동사옥 20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Value Add 프로젝트'가 'PARK 161'로 완성

2020년 10월 시작된 'Value Add 프로젝트'가 오랜 기다림 끝에 'PARK 161'로 완성되었다. 'Value Add 프로젝트'는 SBS 목동사옥 20년 역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목표로 지하 1층 선쿤(Sunken)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 건축물을 증축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상업시설 주차장에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기존 주차 공간과 야외 휴게 공간을 동시에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PARK 161'이라는 네이밍은 올해 상반기 사내 공모를 통해 오목공원과 사옥의 도로명주소를 결합해 직관적이고 인지가 용이한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입점 업체는 2021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젊은 세대의 외식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여 총 8개 업체로 선정되었다. 특히, 'PARK 161'은 SBS 임직원과 방문객들이 새롭게 개장한 오목공원의 열린 뷰(Open-View)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PARK 16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에 'GS25' 편의점, 연남동에서 태국 스타일 소고기 쌀국수로 유명한 '소이연남', 기존 '유미분' 분식점을 리브랜딩 한 '롤포유', 캐주얼 일본 요리 음식점인 '후라토식당'이 입점한다. 1층에는 임직원 46.2%가 선호한 '스타벅스'가 지난 9월 21일 제일 먼저 오픈해 관심을 모았으며, 뉴욕의 파인 캐주얼 다이닝 '쉐이크쉑'도 10월 넷째 주에 오픈 예정이다. 특히, 'PARK 161' 스타벅스의 경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회용컵(리유저블컵) 회수기를 설치해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했다. 2층에는 '팔진향', '삿뽀로'를 리브랜딩 한 새로운 중식 브랜드 '미미화방'과 일식 브랜드 '히카리 서울'이 입점한다.

이번 'Value Add 프로젝트'를 진행한 자산개발팀은 "'PARK 161'이 SBS 임직원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해와 관심으로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SBS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SBS Story Lounge' 탄생



'Value Add 프로젝트'와 함께 목동 사옥의 로비와 2층 역사관도 새롭게 변신한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꾼 로비는 기존 바닥재와 천장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가 증축으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트 톤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1층의 미디어 기둥은 2층 라운지에서 영상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대형 LED로 높이를 더했다. 또한 부족한 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층에 회의실 2개를 신설했으며, 그 앞에는 임직원들이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도 배치했다. 상가와 인접한 2층에는 2개의 라운지 공간이 조성된다. 첫 번째는 기존 역사관이 'SBS 스토리 라운지'로 탈바꿈된다. 'SBS 스토리 라운지'는 기존 역사관 내 오브제를 활용한 '히스

토리 월'과 SBS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가변형 '디스플레이 월'을 설치해 SBS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두 번째로, 'SBS 스토리 라운지' 반대편에는 빔 프로젝터와 소파 및 탁자를 배치, SBS 콘텐츠를 홍보하고 임직원과 방문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로비 벽면(스튜디오 진입로 부분)에는 SBS와 동반 성장해 온 대표적 아티스트들의 핸드프린팅을 전시해 SBS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했다. 한편, 로비 외에 지하 1층 사내식당도 10월 14일(토)부터 10월 31일(화)까지 리뉴얼 작업에 들어간다.

녹색 아버지회 열혈 아빠 4인방의 지구 안전 수호기

10월 25일(수) 첫 방송



친환경 버라이어티 新예능 <녹색 아버지회-열집 남편들>이 10월 25일(수) 첫선을 보인다. <녹색 아버지회-열집 남편들>(이하 <녹색 아버지회>)은 연예계 대표 아빠 4인방이 내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국내외 환경 이슈를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솔루션을 보여주는 친환경 버라이어티이다.

지구 안전을 책임질 연예계 대표 아빠로는 차인표, 정상훈, 류수영, 제이슨이 뭉친다. 연예계 대표 '국민 남편' 차인표, 육아 서적을 집필한 아빠 내공 100단 '워너비 남편' 정상훈,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스윗한 '아빠 요리사' 류수영, 최근 돌을 맞이한 아들 준범이를 위해 열혈 육아를 펼치며 '육아 고수'로 거듭난 제이슨까지. 이들 네 사람의 못 말리는 열혈 케미스트리가 벌써부터 기대감을 안겨준다.

<녹색 아버지회> 회장을 맡은 차인표는 앞서 스탠퍼드대와 반기문재단이 주최한 '한태평양 지속가능 대화(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2023)'의 기후변화 명예 홍보대사로도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차인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구가 주는 무수한 축복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전하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호소해 큰 울림을 선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4일(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에 나선 차인표는 '경기 관람 후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우자!'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출연해 지구 환경 지킴이로 확실한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녹색 아버지회>는 트렌드를 넘어 필수 가치가 된 ESG와 지속 가능성에 걸맞는 '착한 실천 예능'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녹색 아버지회>는 <정글의 법칙>, <공생의 법칙> 시리즈로 야생과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전한 김진호 PD가 연출을 맡았다. 내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착한 실천 예능 <녹색 아버지회>는 10월 25일(수) 밤 10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AI 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 11월 2일(목) 개최, 10월 25일(수)까지 참가 신청

Rewriting the Economic Paradigm in the Age of AI



아니마 아난드쿠마르
엔비디아(NVIDIA) AI 연구 책임자



강문수
삼성전자 어드밴스드패키지(AVP) 사업팀장(부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김성훈
업스테이지 CEO



가이 스탠딩
노동경제분야 세계적인 석학



마틴 포드
'로봇의 지배', 'AI 마인드' 저자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이하 SDF)'이 올해는 'AI 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목)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기조 연사로는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NVIDIA)의 AI 연구 책임자 아니마 아난드쿠마르와 삼성전자의 어드밴스드패키지(AVP) 사업팀장인 강문수 부사장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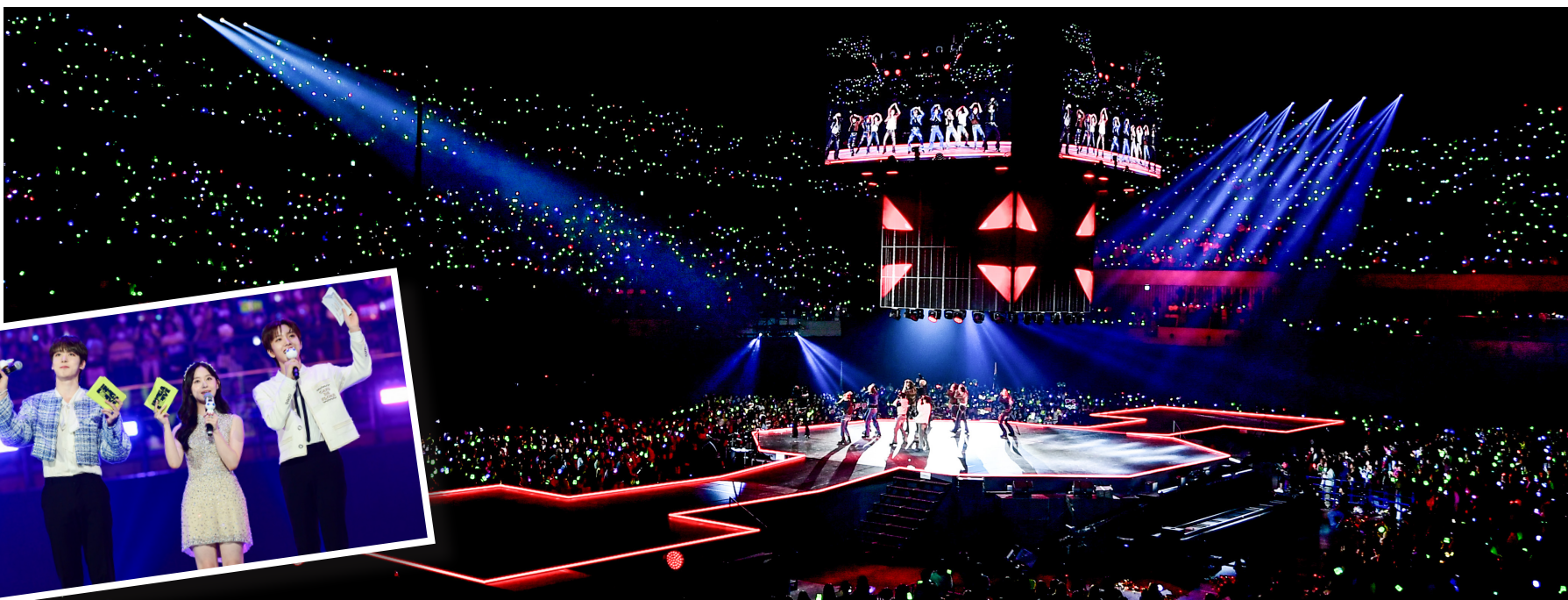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최연소 석좌교수이기도 한 아니마 아난드쿠마르는 엔비디아에서 AI 머신러닝, 차세대 AI 알고리즘 등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AI 뉴스레터가 꼽은 'AI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강문수 부사장은 인텔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으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신설한 첨단 패키지(Advanced Package) 사업팀을 이끌고 있다. 아니마 아난드쿠마르와 강문수 부사장은 이번 기조 연설과 특별 대담을 통해 AI가 산업에 미칠 영향, AI 시대에 대비하는 신산업 전략 등을 얘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동경제학자이자 영국 런던 소아스(SOAS) 대학 연구교수 가이 스탠딩, 미래학자이자 '로봇의 지배', 'AI 마인드'의 저자 마틴 포드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김성훈 업스테이지 CEO 등 AI 분야 한국 글로벌 리더들이 대거 연사로 나선다. 또한 SBS 문화재단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도 포럼 당일 발표된다. 특히, 'SDF 2023'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모든 연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대면 연설을 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개막 공연과 무대 세트 디자인도 처음 선보인다. 아울러 SBS 미디어기술연구소가 개발한 'AI 화정'을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 AI 사진관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25일(수)까지 'SDF 2023' 홈페이지(www.sdf.or.kr)에서 할 수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 도쿄 공연 성황! 현지 K-POP 팬들 열광



<인기가요>가 글로벌 공연 프로젝트 일환으로 10월 3일(수), 4일(목) 양일간 도쿄 아리아케아레나에서 개최되어 도쿄의 밤을 K-POP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이번 <인기가요 라이브 인 도쿄>에는 키(KEY), NCT DREAM, 에이티즈, 오마이걸, (여자)아이들, 제로베이스원, 케플러, INI, NiziU, 더뉴시스, 템페스트 총 11팀이 양일간 무대에 올라 3만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글로벌 K-POP 팬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Connect to Heart'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티켓 판매 시작 2주만에 12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공연 시작 전부터 현지 K-POP 팬덤을 실감케 했다.

이날 공연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스페셜 토크쇼, F&B 부스, 오리지널 MD 매장 등 많은 볼거리로 현장에 모인 K-POP 팬들을 매료시켰다. 그중에서도 많은 K-POP 스타들의 촬영 명소로 알려진 '인기가요 계단'을 재현한 특설 포토존은 촬영 행렬이 이틀간 줄을 이었다. 또한 공연 당일 <인기가요 라이브> 관련 키워드가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는 등 일본 MZ세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한편, <인기가요 라이브 인 도쿄>는 양일간 공연 중 주요 무대를 편집해 10월 8일(일) SBS에서 방송되었다.

SBS Love FM 가을 개편… 박세미, 유민상, 정엽 새 DJ로 발탁!



코미디언 유민상과 박세미, 가수 정엽이 러브FM 신설 프로그램 DJ로 찾아온다.

러브FM(103.5MHz)이 가을을 맞아 10월 16일(월)부터 기존에 방송되던 <허지웅쇼>, <정엽의 LP카페>, <간미연의 러브나잇>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단장된다.

먼저 '서준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세 유튜버이자 코미디언 박세미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허금옥 연출, 매일 오후 12시 5분~2시) DJ로 낙점됐다. <수다가 체질>은 쇼핑, 취미, 건강, 패션, 소통, 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맛깔나게 소개하는 생활 밀착 정보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박세미는 '서준맘의 3분 고민해결', '뇌섹남녀', '지식교양 이미지세탁소' 등 알차고 다양한 코너들로 청취자와 함께 발랄한 정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제작진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에서 보여준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친화력, 소통 능력, 공감력 등을 통해 차세대 라디오 DJ 스타로서의 역량을 발견했다"고 박세미의 섭외 이유를 밝혔다.

저녁 6시에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최다은 연출, 매일 저녁 6시 5분~8시)가 신설된다. 오랜 기간 <두시탈출 컬투쇼>의 스페셜 DJ를 맡아왔던 유민상이 데뷔 18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DJ를 맡게 됐다. <배고픈 라디오>는 웃음과 교양을 섞은 정보 프로그램으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퇴근길 청취자들에게 유민상이 푸근한 파트너가 될 예정이다. <배고픈

라디오>의 대표 코너로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먹고 삽시다', 역사와 맛집을 함께 살펴보는 '역맛살', 매주 다양한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 각종 인생의 기술을 배워보는 '배움의 민족' 등이 준비 중이다. 유민상은 "평생의 꿈이 내 이름이 담긴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뤄서 기쁘다"고 DJ 발탁 소감을 전했다. 유민상의 첫 단독 진행 프로그램인 만큼 첫 주에는 코미디언 신봉선이, 둘째 주에는 코미디언 김해준과 이수지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 <정엽의 LP카페>를 진행해온 정엽은 오후 8시로 시간대를 옮겨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변정원 연출, 매일 저녁 8시 5분~10시) 진행을 맡는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는 '그대들을 위한 감성 힐링 라디오'라는 컨셉으로 2시간을 채울 예정이다. DJ 정엽이 30대~50대 감성을 자극할 좋은 음악과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라디오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청취자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엽의 추천곡을 감상해볼 수 있는 '엽디 위주로 갑시다', 솔비와 함께 세상의 모든 특이한 캐릭터를 분석해보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맛탐영과 음식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맛의 전쟁', 20세기 추억의 히트송을 들어보는 '추억 체크인' 등 음악과 재미를 동시에 담은 색다른 코너들로 밤의 감성과 지친 하루에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SBS 플러스

나는 I am

SOLO

16기 돌싱특집, 시청률X화제성 1위로 마무리



<나는 SOLO> 16기 '돌싱 특집'이 뜨거운 화제 속에 10월 4일(수) 마무리됐다.

이번 '돌싱특집'의 경우, 술한 화제를 모으며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 눈길을 모았다. 먼저, 11주 방송 기간 중 총 9주 동안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전 채널에서 수요일 2049 시청률 1위(이하 수도권, 유료방송, SBS Plus+ENA 기준)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지난 9월 13일(수)에는 가구 시청률 평균 7.367%로 수요일 1위는 물론,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화제성과 광고 판매를 견인하는 지표인 2049 시청률 역시 10월 4일(수)에 4.362%로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하는 고무적인 성과

를 보였다.

시청률뿐만 아니라 화제성 지표에서도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집계하는 9월 3주차 '비드라마 TV부문'에서 <나는 SOLO>가 당당히 1위에 오르는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본 방송 직후 총장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려 인기 '화력'을 입증했다. SBS <짝>의 계보를 이으며 승승장구 중인 <나는 SOLO>가 17기에서는 또 어떤 기록으로 방송가를 뒤흔들지 귀추가 주목된다.